



마동석(아래)과 이동휘

영화 '부라더' 내달 2일 개봉

코믹한 가족이야기 담아

마동석·이동휘 호흡 기대

‘대세배우’ 마동석(46)과 개성파 연기자 이동휘(32)는 영화 ‘부라더’에서 찰떡 호흡을 보여준다. 다음 달 2일 개봉하는 ‘부라더’(장유정 감독)는 안동의 갯강집 형제가 아버지의 장례식날 고향을 찾으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이 작품에서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는 형제로 출연한 두 배우를 18일 서울 팔판동의 한 카페에서 차례로 만났다.

먼저 마동석에게 ‘배우로서 전성기를 맞은 것 같다’고 말을 건네자, “영화가 잘 된 것일 뿐 전성기는 아니다”라는 겸손한 대답이 돌아왔다. 그가 조폭 잡는 형사로 출연한 전작 ‘범죄도시’는 현재 4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마동석은 “영화를 선택할 때 흥행을 염두에 두거나 혹은 ‘지난번에는 센 작품을 했으니 이번에는 말랑말랑한 작품을 해야지’하는 전략은 전혀 없다”면서 “‘부라더’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야기를 심각하지 않고 코믹하게 풀어내 끌었다”고 출연 계기를 밝혔다.

우람한 체구와 허벅지만 한 팔뚝이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부라더’에서도 자신이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웃음으로 승화시킨다. 옆으로 누웠을 때 굵은 팔뚝 때문에 머리가 바닥에 닿지 않는 장면 등은 마동석에게 가능한 연기다.

“사실 그 장면은 (이)동휘가 현장에서 저를 보고 느낀 것을 애드리브로 만들어낸 장면이에요. 저도 제 머리가 바닥에 안 닿을 줄은 몰랐죠. 하하”

사실 그의 체구는 배우로서 강점이 아니라 약점이었다.

“처음에 단역을 했을 때 저 같은 체구는 배역이 한정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 길을 걸었죠. 제 얼굴요? 얼굴은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스무살 때부터 이 얼굴이었거든요.”

그는 이미지 소비 우려에 대해서도 “앞으로 다양한 영화를 많이 찍을 것이기에 큰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무척 건강할 것 같은 겉모습과 달리 사실 그의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 있다.

“예전에 양쪽 어깨가 부러져서 지금은 공을 못 던집니다. 또 무릎 연골이 없어서 뛰는 것도 무릎통에서 대역해줄 정도죠. 그래서 근육량을 유지하지 않으면 액션을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마동석은 ‘범죄도시’ ‘부라더’에 이어 ‘신과 함께 2’, ‘곰탕이’(가제), ‘원더풀 라이프’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최근에는 팔씨름을 소재로 한 영화 ‘ 챔피언’에 주연으로 합류했다. 그는 “한 달에 시나리오가 30~40편씩 들어오는데, 그중 골라서 1년에 4편 정도 찍기 때문에 다작 배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마동석은 지난해 ‘부산행’에서 좀비를 때려눕히는 액션을 선보인 이후에는 할리우드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할리우드로부터 (작품 출연을 위해) 7개월 정도 시간을 비울 수 있는냐는 연락을 받기도 했는데, 한국에서 미리 약속해놓은 영화들이 있어서 못했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야죠.”

액션 말고 멜로 영화 출연 의사는 없느냐고 묻자 “제가 나오는 정통 멜로 영화는 저도 안 보고 싶다”며 손사래를 쳤다.

마동석의 동생 주봉역으로 호흡을 맞춘 이동휘는 마동석에 대해 각별한 애정부터 드러냈다. “동석이 형이 진짜 제 형이었다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만큼 따뜻하고 매력적인 분이죠. 그의 보호를 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촬영장에서의 에피소드도 들려졌다. “동석이 형은 팔심이 무척 셉니다. 분명 시나리오상에는 액션신이 아닌데, 영화를 찍고 집에 가면 이상하게 몸이 아프더라고요. 동석이 형과는 간단한 소동 장면을 찍을 때도 다른 것 같아요. 하하”

이동휘는 ‘부라더’가 첫 영화 주연작이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안동미남’으로 나온다. 그는 “미남이라는 설정이 민망해서 감독님께 바꿨달라고 했지만, 들어주지 않으셨다”면서 “출연전 모두 제가 미남이라는 믿음으로 연기한 영화”라며 속스러운 듯 말했다.

이동휘는 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안투라지’, ‘응답하라 1988’과 영화 ‘원라인’ ‘재심’ ‘공조’ 등 TV와 스크린을 오가며 활약했다. 얼굴이 널리 알려졌지만, 아직도 대중교통을 애용한다는 그는 “얼마 전 지하철을 탔는데 ‘이동휘 님이네’라는 말을 들었다”며 웃었다.

그는 “그동안 주로 사기꾼, 배수, 학생 등 이런 역할만 했기 때문에 반듯한 직업이 있는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었다”면서 “나이가 되면 왕 역할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택시운전사’ 독일서 상영한다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 26편 상영... 韓 문화 체험도

독일 기자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취재 실화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사진)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상영된다.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과 ‘사단법인 Project K’는 18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시네스타 메트로폴리스 영화관에서 제6회 프랑크푸르트 한국영화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단법인 Project K’는 프랑크푸르트대학 한국학과 학생들과 독일 젊은이들로 구성된 단체다.

영화제에서는 총 26편의 한국 영화가 상영되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개막작은 장준 감독의 ‘택시운전사’다. 영화의 실제 모델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미망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와 당시 영상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위르겐 베르트랑 편집기자가 관람한다.

김영하의 소설을 영화화한 ‘남한산성’도 상영된다.



‘군함도’ 감독판과 ‘보통사람’, ‘더 킹’, ‘재심’, ‘공조’ 등 주로 한국 근현대사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소개된다.

올해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주목을 받은 ‘사월의 끝’과 자그레브네미메이션영화제 수상작인 ‘아버지의 방’ 등도 상영된다.

영화제 부대행사로 한글·한복·한식·한지 체험과 K팝 댄스 경연도 펼쳐진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영화제 홈페이지(project-k-frankfurt.de)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대작’ 조영남, 집행유예 “당혹스럽다”

‘그림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영남은 18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재판에서 작품 작업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했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럽다”며 “항소하는 쪽으로 변호사와 얘기했지만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이날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조영남의 그림 작업에 참여한 송모 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작품에 독자



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영남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TV 프로그램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좌충우돌 만국유람기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	50 병원선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 50 UHD 한식	00 매드독 (재)		00 애니갤러리 30 고향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55 세상의 모든 다큐	00 밤상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특 보험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꼬마농부 라비	45 생생정보 스페셜		55 닥터 365
2	20 반지의 비밀일기 50 2017 대한민국 판소리 축제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똑? 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00 뽀글이 사랑해 (재) 30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00 MBC 다큐프라임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통조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토이캡 15 티빙메카드 R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병원선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정글의 법칙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볼 24 55 닥터 하우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명크로아의 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글로벌 다큐멘터리 -살아있는 지구?			
10	30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병원선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0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55 2017 춘천 가족음악축제	10 해피 투게더	10 MBC 스페셜	10 자기야-백년손님
12	45 인간극장 스페셜	40 세상의 모든 다큐	1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II)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해물 피에아, 구운 로메인샐러드)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친구 15:35 모피와 곤구들 15:45 랜드러하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영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놀리 17:45 뚝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봉숭아매 학교가다) 08:00 덩동영 유치원 1~2 08:30 뚝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엠마 까투리(재) 09:30 플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봉숭아매 학교가다)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큐영화 - 김 위외 인생 (대나무 떼문, 아버지와 아들)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20:40 다큐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아시아 최후의 정글 4부 열대 우림 속 숨은 보석) 21:30 한국기행 (시선기행, 우리 점방 4부 삼촌이의 바다 점방) 21:50 과학 다큐 비온드 (21세기 노아의 방주, 해상도시)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특집 다큐멘터리 (위대한 유산, 중앙아시아) 24:05 지식체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9일(8월 30일 己卯)
子	48년생 기급적 나서지 말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냄이 백 번 나을 것이다. 60년생 적절한 시기의 선택과 실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72년생 기다리는 것이 무난하다. 8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즐거우게 계속 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43, 03	42년생 함께 하도록 하자. 54년생 다수의 어중간함 보다는 소수의 확실함이 낫다. 66년생 편견 없이 판국을 살핀다면 해법을 찾을 수 있다. 78년생 과정은 힘들더라도 결심은 양호하리라. 90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행운의 숫자 : 72, 87
丑	49년생 누구도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곤혹스러움이 보인다. 61년생 상태를 파악하고 임한다면 절반은 이룬 셈이다. 73년생 지극 순질함이 가장 나을 것이다. 85년생 헛대를 갖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28, 46	43년생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다. 55년생 유동적이나 만큼 변수의 폭까지 감안해야겠다. 67년생 일치하지 않을 수 없으니라. 79년생 소소한 것은 차치하고 주된 가치에 충실하라. 91년생 완벽하게 대비했을 때는 피해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7, 54
寅	50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접하게 될 수 있다. 62년생 마음이야 모든 것을 이루고도 남음이 있었으나 여간상 기다림이 필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74년생 대처 방안이 요청된다. 86년생 열정을 쏟아 부어야만 길사로 연결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32	44년생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서류 등은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표면일 뿐이므로 동요될 필요는 없다. 68년생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니 만전을 기해야겠다. 80년생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9, 99
卯	51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장에 이른다. 63년생 패도난 마 했을 때 참신한 대안을 찾게 된다. 75년생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87년생 미묘한 차이가 변수를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02, 50	45년생 절연에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57년생 지금은 이변과 돌발적 상황이 대세이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자. 69년생 기대치에 못 미치어 실망하는 판도이다. 81년생 요령이 있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60, 06
辰	52년생 경험의 함정이 옳은 판단으로 이끈다. 64년생 지나가 버린 것은 뒤돌아 볼 필요 없으니 앞만 보고 진행하자. 76년생 돈을 잃은 늑대나지만 들어 올 곳은 한정적이다. 88년생 동선이 예측 불허하니 어디로 튈지 모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20, 30	46년생 불편하다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8년생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느냐 못 갖추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70년생 제3의 요소가 게임되면서 복잡해지지만 한다. 82년생 근거가 빈약하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리라. 행운의 숫자 : 26, 41
巳	53년생 막혔던 바가 시원하게 뚫릴 것이다. 65년생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겠다. 77년생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백 번 나을 것이다. 89년생 머지않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려라. 행운의 숫자 : 33, 94	47년생 길사로 인해서 탄력이 붙는다. 59년생 남이 들을지도 모른니 조용히 얘기해야겠다. 71년생 새로운 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살펴라. 83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88, 64